

酩酊雜學(Ⅲ)



吳 蘇 白

(韓國弘報研究所·代表)

- 本稿는 술에 얽힌 이야기를 시리즈로 연재하는 것임.
- 편집자註 -

■ 목 차 ■

- 만성알콜중독
- 숙취와 약취
- 술과 SEX

만성알콜중독

극성 알콜중독이니, 만성 알콜중독이니 해 보았자, 증례(症例)만이 뚜렷하게 구별될 뿐이다. 양쪽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는 않다. 더우기 양쪽이 근본적인 공통 원인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그 원인부터 이야기한다.

입을 통해서 마신 알콜은 마치 주사를 맞은 것과 똑같이 극히 간단하게 위장에서 체내로 들어가 퍼진다. 그렇지만 그것이 산화해서 변화하거나, 혹은 오줌 속에 섞여서 배설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보통 속도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시는 술일지라도 계속해서 마시고 있노라면 몸 속에 점점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체내에 쌓이는 것을 약리학에서는 축적(蓄積)작용이라고 한다.

맥주를 1시간에 1병 꼴로 마시는 템포 이상으로 속도를 올린다고 하면 아무리 맥주같이 약한 술이라도 점차로 혈액 속의 알콜농도는 늘고 그 축적작용에 의해 취기도 점차 심해진다는 것이다.

소위 숙취(宿醉)라는 것도 이러한 알콜의 산화가 지연되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당히 마신 술의 알콜이 완전히 혈액 속에서 소실되려면, 대략 24시간은 걸린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비행기의 승무원은 적어도 24시간 전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극히 적은 식욕촉진제 정도라면, 이의 금지시간을 18시간으로 해도 좋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그런데 만성 알콜중독이라, 하루의 대부분을, 혹은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보내면서, 그 때문에 혈액을 비롯해서 몸의 조직 속에 언제나 알콜이 어느 정도 정제되어 있는 상태를 이

르는 말이다. 따라서 위스키나 진처럼 독한 술이 아니라도 맥주 같은 약한 술을 마시고 있어도 마시는 양과 빈도가 잦으면 만성중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24시간 지나지 않으면, 체내의 알콜이 소실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마시는 반주라도 정도가 지나면 만성중독이 안된다고는 장담을 못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물며, 술이 덜 깎다고 해서, 해장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성중독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하겠다.

이래서 사시장청(四時長靑), 몸이 알콜 속에 잠기고 있으니까 세포의 컨디션이 달라질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만성 알콜중독은 처음에는 약간 기름기가 몸에 도는 것 같은 형태로 몸의 풍신이 좋아 보인다. 이러다가 식사하는 분량이 늘기 때문에 대식가의 방향으로 기울며, 더우기 힘든 육체적인 일을 꺼리기 때문에 먹은 것이 지방분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현상을 술살이니, 막걸리살이니 하지만, 이같은 사람은 간장이나 심장까지도 지방분이 많이모여 전문가가 말하는 지방변성(脂肪變性)의 병리상(病理像)을 나타낸다. 그 전형적인 상이 흔히 만화의 재료가 되고 있는 맥주통 같은 배불뚝이 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위스키나 배갈같은 독한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만 마시고 다른 음식은 별로 안먹는 타입의 사람이 있다. 이에 가까운 타입은 비교적 근육노동자 따위에서 볼 수 있다. 근육적인 노동을 할 때는 평소보다도 알콜의 연소력이 심해지고, 칼로리원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알콜이 실제활동에 소용되고 있는 것이며, 비만증도 생기지 않고 또 동맥경화나 고혈압, 혹은 담석과 같은 비만형 알콜중독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증상도 비교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후자인 타입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조사한 결과로는, 같은 또래의 금주자보다도 순환계가 건강했다는 결과조차 밝혀지고 있다.

(나) 멧서맨박사의 실험

그런데,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정신신경과 교수인 멧서맨박사는 쥐에서 개까지의 동물을 이용해서 알콜이 노이로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동물이란 먹이에 대해서는 꼭 민감하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하면 간단히 노이로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들어, 음성이나 광선의 신호가 있는 뒤에 단추를 누르면, 그 안에 먹이가 들어 있도록 실험장치를 연구하고서 여기서 음식물을 먹도록 동물을 길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으로 길들이 놓은 동물에게 단추를 눌렀을 때, 전기의 쇼크나 폭발음으로 놀래 죽든가, 먹이가 나오는 방식이 불규칙적으로 되게 되면, 털을 곤두세우고 부르르 떨거나, 혈압이나 맥박이 떨거나, 또는 필쩍필쩍 뛰기도 하면서 끝내는 먹이조차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즉 사람이 보아도 노이로제 증상에 걸린 것을 대변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실험적 노이로제 증상은 물에다 알콜을 섞어서 먹이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놀라게 하고서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알콜물을 먹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 또 일단 알콜물로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을 안 동물 가운데에는, 자진해서 알콜이 포함되어 있는 물을 마시려는 경향조차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에서 멧서맨박사는, 곤란한 문제에 부딪친 인간행위에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 더우기 노이로제 경향이 있는 사람은 심한 위협이나 분류를 당면했을 때, 알콜이라는 유효한 정신안정제, 뇌활동의 억제제에 구원을 청해서, 결국은 알콜중독이 되어 간다.

쉽게 말해서 속이 상한다고 조금씩 마시던 술이 도가 지나쳐서 알콜중독이 되는, 말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자기가 물에 빠지는 격이 되는 것이다.

(다) 알콜중독의 신경장해

그런데 알콜의 만성중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신경장해이다. 그 원인으로서 알콜의 지방분에 대한 영향이 가장 주목되고 있다. 이 지방분은 단백질 따위와 결부해서 몸을 움직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전문용어로 리포이드라고 하는 것은 신경 속에도 많이 포함되어 신경의 생리적인 작용과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리포이드는 알콜에는 특히 잘 녹기 때문에 알콜이 혈액 속에서 늘고, 다시 신경으로 돌아오는데 따라 리포이드의 변화영향으로 신경의 작용까지 탈이 날 것만은 뻔한 이치이다.

실체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알콜중독 환자의 시체를 해부해 보아도, 육안으로나 현미경으로나 정상적인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 두고서, 여기서 알콜의 해로운 점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나 아직 조금 설명한 뒤로 미룬다.

만성 알콜중독 환자의 시체를 병리해부해서 조사해 보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투명해야 할 뇌막이 흐리고, 또 부은 것 같이 보인다. 특히 심할 때에는 이 국소적인 출혈이 뇌를 압박하고 그 결과 사망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혈이 알콜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취한 후에 심하게 넘어지거나, 추락하거나 하는 따위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일 때도 많은 모양이다. 또 처음에 말한 뇌막의 변화만 하더라도 동맥경화증, 매독 혹은 더욱 일반적인 노년성 변화로 나타나는 수가 결코 적지 않으니까, 그 변화를 가지고 알콜중독에만 있는 특이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알콜의 만성 중독상태가 심해지면, 덜리리움 트레멘스(譫忘症)라는 상태가 생긴다. 이러한 상태는 보드카·아브산·진·위스키 따위의 독한 술을 오랫동안 마심으로써 발생하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 덜리움 트레멘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환각증이 생겨 몽유(夢遊)병자처럼 되는 것이다. 이같은 달갑지 않은 상태는 단순한 알콜중독만이 아니고, 간장의 기능이 침식되어 생기는 체내의 대사가 이상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특히 음주와 관련해서 이러한 증세가 발작한다. 따라서 밤에 제일 많이 발작하기 쉬운 도박·도마뱀·취 따위가 나타나기도 하고 무섭다고 괴이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벌레가 전신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이상감각이 생긴다. 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동작을 할 때도 있다. 그러고는 그런 발작 내용을 조금도 모르는 건망증을 나타낸다. 또 특히 젊은 여성이 알콜중독에 걸렸을 때, 코르사코프 증상이라는 일종의 미친 짓을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 코르사코프 증상은 만성 알콜중독뿐 아니라, 가스나 납 같은 것으로 인한 중독, 요독증(尿毒症)이나 매독에서 볼 수 있듯이 다발성 신경염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체의 염증성 변화에 수반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언뜻 보아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으나, 때때로 자기가 말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뻔한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며, 잊어버린 일을 거짓말로 꾸며서 떠벌리게 된다.

이러한 신경계의 변화가 만성 알콜중독의 제일 특징적인 변화이지만, 그 외에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병이 병발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라) 위와 간장의 변화

우선, 만성 위염이 생긴다. 그 이유는 10~

20% 이상의 알콜을 포함하는 술은 위장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위산의 분비결핍증이 발생한다.

술의 정도가 지나치면, 급성·만성할 것 없이 간장에 지방이 고여, 지방간(脂肪肝)의 형태가 되지만, 아이소토프의 실험으로 보아, 이 지방은 아드레날린 따위의 호르몬 영향으로 피부 밑에서 이동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만성 알콜중독의 경우에는 간장의 세포에 대한 알콜의 직접작용이라는 또 다른 힘이 첨가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만성중독일 때, 간장은 지방변성(脂肪變性)을 일으키지만, 이 변화는 남성보다도 여성의 알콜중독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만성 알콜중독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것은, 소위 간경변증이다. 간장 본래의 작용에서 필요한 실질 세포가 줄고, 그 공간을 채우는 섬유가 늘어난 상태이다. 그 때문에 간장은 벌집처럼 단단해지고 또 오무라져 간경변증이란 이름이 생겼다.

M교수에 의하면, 대주가의 간장은 99%까지 만져 볼 수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임상병리의 검사에서 간장장해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증례는 30%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T교수의 발표를 보면, 하루 3홉 이상의 대주가의 간장은 그 25%에서 뚜렷한 간경변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겨우 7%가 좀 모자라는 숫자인데도...

간경변증 증례의 50%는 만성 알콜중독 환자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또 K교수의 보고를 보면, 만성 간장병이 있는 환자일 수록 음주자가 많다고 하는데, 실험적으로 이 병을 나게 한 쥐의 간장병에서도 역시 치유가 늦어진다는 것이 그 조직표본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술과 함께 비타민 기타의 영양결핍이 간경변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 알콜의 작용으로 부신피질이 직접 침식당하거나, 흔히 만성 알콜중독 환자에게서 발생하기 쉬운 강력한 스트레스 때문에 부신피질이 극도로 피로해서 피부가 검게 되고, 「아지손씨병」과 같은 기능의 쇠퇴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 사람은 대단치 않은 일에도 별안간 목숨을 잃는 사고를 내기 쉽다.

숙취와 악취

(가) 숙취와 악취의 차이

사전을 펼쳐 보면 숙취란, 「전날 마신 술이 다음날까지 깨지 않은 취기」라고 설명되어 있다. 영어로는 행오우버(hangover), 즉 「줄곧 붙어다니며 떨어지지 않는 유물·피물」, 또는 일 드랑큰(ill-druken), 즉 「나쁘게 취했다」는 뜻이 되는데, 인독시케이션(intoxication), 즉 「중독」이란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 「나쁘게 취했다」하는 말을 악취(惡醉)라고 부르기로 한다. 국어사전에는 동사적(動詞的)인 성질을 띤 명사로서 악용·악식·악무(惡用·惡食·惡舞) 따위는 있는데, 악취는 없다. 있을 수 있는 말인데 누락되었기에 한마디 덧붙이고 넘어가려는 것이다.

이처럼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경험에 비추어 숙취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의학적으로도 역시 차이는 있는 모양이다.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세트아르데히드 따위의 악취의 원인이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된다면, 숙취에다 악취가 곁들여진다. 그러나 알콜의 직접적인 후유(後遺)작용은 아세트아르데히드 없이도 나타난다. 이 점은 세계적인 알콜 학자의 권위인 북유럽의 골드베르크 박사의 연구로도 밝혀지고 있다. 체중 1킬로당 0.7그램이라는 소량의 알콜 밖에 마시지 않았을 때조차 반 나절, 즉 12시간 후에 눈알의 진탕

증(震盪症)은 잔존했던 것이다. 식사를 취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술만을 마셨을 때는 나중에 저혈당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자동차사고를 연구하는데 관계해서, 영국의 캠프즈 박사가 발견한 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또 우리들의 체험으로서 독한 술을 지나치게 마시거나 무질서하게 마구 마시거나 하면 소화기, 특히 위가 상해서 급성 위염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따라서 숙취와 악취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 악취라는 것은 술 마신지 2~3시간에서 5~6시간 지난 후에 나타나는 불쾌감, 극단적인 초조감, 혹은 침울해지는 상태, 그리고 토하거나 현기증을 일으키는 따위의 신체적 상태가 겹친 증상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숙취라는 것은 훨씬 늦게, 글자 그대로 자고난 다음날 아침에 나타나는 심신의 불쾌증상이란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피로감과 권태감이 심하고, 위의 컨디션도 나쁘고, 심할 때에는 골이 아프고 현기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숙취는 악취와는 달리, 술마신 후 10시간쯤 지나서 나타나게 된다.

(나) 푸젤유의 작용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푸젤유(油)라고 총칭되는 고급 알콜류, 즉 아밀알콜이나 프로피르알콜 따위의 탄소가 많이 포함된 알콜에는 메틸알콜과 마찬가지로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강하다고 인정되어 있다. 그 때문이 이 푸젤유가 악취의 원인이라고 일찌기 생각해 왔었다. 또 그 양이 0.1~0.2%라는 적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 약리효과로 보아, 악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현재는 학자들 간에 지배적으로 퍼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함유량만을 가지고 간단히 판단해서 푸젤유를 전혀 무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북유럽의 연구가 술의 생리학과 알콜의 생리학과는 같지 않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에틸알콜을 술의 알콜 성분과 똑같이 넣은 물과 현실의 술과는, 가령 그것이 약리효과는 같다 하더라도 생리효과는 다르다는 것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가지 술에 섞여 있는 푸젤유뿐 아니라, 각종의 비교적 근소한 고형성분이 그 술들의 제나름대로의 개성을 형성한다는 점이 의학적인 면에서도 분명해진 것이다.

즉 감각의 세계뿐 아니라, 소화작용 기타의 현실면에 있어서도 술에는 제각기 개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뚜렷이 밝혀낸 사람이 스웨덴의 국보적인 존재라고 하는 알콜의 생리학자 골드베르크 교수이다.

그는 소위 푸젤유가 악취증상의 하나이기도 한 눈알의 진탕에 미치는 영향을 교묘한 실험 방법을 이용해서 시험했다. 1리터 가운데에 26.4밀리그램의 아르데히드·메틸알콜·프티알콜·아밀알콜 등을 포함하는 보드카와, 이러한 불순물인 푸젤유를 2.555밀리그램, 즉 10배·가까이 포함하는 보드카를 비교해 본 것이다. 그 결과는 에틸알콜의 섭취량은 체중 1킬로당 똑같이 0.25밀리그램씩이었는데도 눈알의 진탕은 푸젤유가 많은 강한 보드카 쪽이, 푸젤유 함유량이 10분의 1인 순(純) 보드카보다도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더우기 혈중 알콜농도는 강한 보드카 쪽이 마신지 약 15분 후에 10%(0.093% 대 0.086%), 2시간 반에는 40%(0.061 대 0.044%)나 높았던 것을 밝혀 냈다. 결국 이 실험에서도 또한 푸젤유로 말미암아 에틸알콜의 순조로운 산화작용이 방해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다) 아세트 알데히드와 지명수배법

그러나, 현재의 악취를 규명한 최대의 과학

적 근거는 아세트알데히드설(說)이란 것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에틸알콜, 즉 알콜의 직접적인 산화산물이다. 그리고 이 아세트알데히드의 약리작용은 신경 자극을 주는 것이어서 두통이나 메스꺼움, 구역질 따위인 악취의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음주 후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악취를 가져오게 하는 장본인-진범인 뉴욕의 타바쇼유 박사와 일본의 A박사의 연구에 의해서, 술 가운데의 에틸알콜이 체내에서 연소되는 도중에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취의 약리작용을 밝히기로 한다.

첫 머리에서 이야기한 메틸알콜의 중독도 실은 메틸알콜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 중간대사산물인 포르말린(호름 알데히드)이라는 독성에 의한 것이다. 포르말린은 조직의 단백을 응고시킬 만큼 심한 독성을 함유했다는 것을 의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에틸알콜에서 이루어진 중간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 독의 작용은 비교적 심하다. 예를 들어, 체중 1킬로그램당 0.25밀리그램 혹은 10밀리그램 정도의 적은 아세트알데히드를 고양이나 개에게 주사하면, 그것만으로도 부신을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또 더욱 다량으로 체중 1킬로그램당 30밀리그램이란 양을 주사하면, 적어도 토끼에서는 오히려 심장의 활동이 악화되어 혈압이 낮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뇌의 조직 호흡(組織呼吸)의 상태를 조사한 캐나다의 빌박사에 의하면, 아세트알데히드는 에틸알콜의 200배나 뇌에 미치는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에틸알콜 그 자체도 뇌의 조직 속에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이다.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 기타의 모노아민 화합물의 대사를 억제하여, 그것을 감소시키는 힘이 강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음주에 의한 반응시간의 지연, 나아가서는 뇌의 마취작용의 커다란 원인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보다 독성이 200배나 강한 알데히드가 첨가된다면 못 배겨날 것만은 정한 이치이다.

H박사의 실험에서 보면, 의학생 9명에게 청주 3홉(540cc), 혹은 위스키 1홉(180cc)을 먹여 보았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혈중 알콜농도가 120밀리그램%, 혈중 알데히드 농도는 0.5~0.6밀리그램% 정도로 늘었으나, 알콜의 혈중농도의 절정에서도 기껏해야 음주 후 1~2시간이었는데 대해, 알데히드 농도의 절정은 4~5시간 후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두통이나 구역질 같은 악취는 이 알데히드 농도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간과 일치하여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악취의 증상과, 혈중알콜과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와와의 관계를 대주가와 보통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니 「표 : A」와 같은 계산이 나왔다.

〈표 A〉 대주가와 보통사람과의 차이

	음 주 량 체중1kg당 (g)	악취	최고알콜 농도(mg%)	최고알데히드 농도 (mg%)
대 주 가(9명)	1.9	+	200	0.84
보통사람(27명)	1.0	-	105	0.48
의 학생(11명)	1.5	+	150	0.76

이 표에서 악취가 평균해서, 혈중 알데히드 농도가 0.5밀리그램% 이상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알콜은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추신경을 마취시킬 뿐이지만, 아세트알데히드는 이와는 반대로 중추를 자극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음주로 말미암아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시초에는 알데히드의 자극작용은 어느 정도 억제된다. 사실, 개나 토끼에게 치사량 만큼의 아세트알데히드를 정맥주사할 경우, 그와 동시에 알콜을 투여하면 죽는 예가 훨씬 줄어든다

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혈중 알콜농도가 낮아지는 시기에 알데히드의 중독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가 된다. 또 숙취로 말하더라도 그러한 관계에서 알데히드의 중독작용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술마실 때, 혈중 알콜농도가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0.3밀리그램% 이하에 그치니까, 약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말하면, 그 양은 청주로 2홉 정도이다.

그러나 약취의 진범인이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말하자면 공범자가 없다는 증명은 아직 없다. 그리고 골드베르크 교수의 푸젤유 연구로 보아도 약취에 참석하는 패거리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라) 술이 싫어지는 약

술을 끊으려고, 또는 술을 못 마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항간에는 많이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하나, 덴마크의 야콥슨 박사가 1948년에 발명한 소위 「술이 싫어지는 약」이란 것인데, 안타프스의 임상실험에서 알아낸 사실이다. 안타프스를 복용하고서 술을 마시니까, 마치 약취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불쾌감을 일으키고 두통이 나고 구역질이 났다. 그래서 안타프스작용을 약리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아세트알데히드가 다시 산화해서 초산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인공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게 해서 술이 싫어지게 하는 안타프스는, 결국 에틸 알콜이 산화하여 최종적으로는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도중, 처음에 생긴 아세트알데히드의 힘을 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더우기 그 증상은 약취의 경우와 꼭 같아서 약취가 아세트알데히드로 생긴다는 생각도 당연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또 1954년의 일이지만, 어느 교수가 석회질소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술만 마시면 얼굴이 새빨강게 되고 몹시 괴로와한다는 사실을 듣고, 실험적으로 석회질소 0.3그램을 먹은 다음에 알콜을 조금 마셔 보았다. 그러니까 몇 분 지나기도 전에 얼굴이 새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맥박이 빨라지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얼굴이 반대로 창백해 지더니 혈압이 저하했다.

또 심한 구토가 나고 두통도 심해졌다. 더우기 다음날이 되어도 구역질과 두통이 남고, 술은 보기도 싫어 졌다고 한다.

이러한 체험에 의한 실험으로 안타프스와 마찬가지로 석회질소에 의한 에틸알콜의 산화장애(酸化障害), 즉 혈액속에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되어서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바로 그 얼마후이다.

또 이들 안타프스 따위의 소위 「술 끊는 약」이니 「싫어지는 약」이니 하는 것은 약취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간장장애 기타의 부작용이 강하다는 점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는 시판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안일한 생각으로 가정에서 그러한 약을 쓴다는 것은 위험하니까 전문의사의 지도를 받으며 사용해야 옳을 것이다.

(마) 짬뽕 술은 왜 나쁜가

「짬뽕」이란 본디 고기와 야채를 섞어서 만든 중국요리의 하나이다. 그런데 술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술을 계속해 마셨을 때, 흔히 「술을 짬뽕으로 마셨다」고 한다.

어쨌든 짬뽕을 하면 약취하기 쉽다고 흔히 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 점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두 가지쯤 참고가 될 만한 데이터가 있다.

그 하나는, 최근 스위스의 에비어 박사등이 시도한 연구이다. 그것은 푸젤유나 프로파놀과

같은 고급 알콜을 섞어서 동물에게 주면, 술의 주성분인 에틸알콜의 연소상태가 불완전해져서 순조롭게 물과 탄산가스로까지 산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푸젤유 따위의 분자량(分子量)이 큰 알콜이 섞여 있는 술을 마실수록 체내의 아세트알데히드의 분량이 느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못 된다.

그리고 짬뽕을 하면 할 수록 아무래도 푸젤유가 든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도 우리들이 경험하는 바이다.

또 여기서 정말로 이술 저술을 마구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종 양주를 혼합해서 만드는 칵테일은 맥주나 위스키보다도 악취하기 쉽다는 체험도 에비 박사(의)의 보고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같은 12%의 알콜이라도 에틸알콜을 물로 엷게 한 것과 진짜 포도주와는 취하는 데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포도주 쪽이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피부의 전기 저항계(抵抗計)로 발견했다.

예일 대학의 카펜터 박사의 연구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취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무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데, 이 술집에서 저 술집이라는 술집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계속 마신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종류의 술을 바꿔 가면서 마시는 그런 무드는 역시 악취하게 되는 지름길이라 한다.

(바) 악취의 예방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앞에서 말한 급성 알콜중독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야기하게 되지만, 이 중독에는 산소나 탄산가스를 들이마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믿어 왔다.

그 이유는, 이러한 흡입으로 말미암아 혈액속의 알콜분을 빨리 연소시키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최근 방사능을 당근·알콜 따위를

써서 연구한 바, 그와 같은 이유보다도 산소나 탄산가스 흡입으로 인해서 호흡작용이 자극되어, 폐를 통해서 혈액에서 호흡에 섞여서 나오는 알콜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이치가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악취를 막아내는 첫째 방법은, 우선 호흡법을 올바르게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있을 때는 흔히 어깨를 구부리고 얇은 숨을 쉬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것이 제일 좋지 않은 자세이다. 똑바로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시면 대개는 악취를 반감시킬 수가 있다.

그 밖에 포도당이나 과당을 주사하거나, 인슐린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하나인 트리요드치로닌과 같은 호르몬제를 주사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가정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좀 통속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비법을 설명하고, 이왕 술을 마실 때에는 즐겁게 마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옛날부터 감을 먹으면 술이 깬다는 말이 전해져 왔다. 이에는 근거가 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감은 과당(果糖)이 많은 과일이어서 포도당이나 과당의 주사를 맞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구역질이 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등을 두드리든가 문지르든가 해서 인공적으로 토하게 하는 방법이 먼저 앞서야 한다.

그리고 감도 좋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감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벌꿀을 이용한다. 이 벌꿀은 성분으로서도 뛰어난 것이며 감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 순 벌꿀에는 과당, 포도당 뿐 아니라, 비타민 종류도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악취예방과 치료대책에 크게 효용이 있다.

S교수는 악취의 제일 중요한 원인은 알콜이

연소해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도중에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모이기 때문이라는 정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 화합물은 소독에 쓰이는 세포독(細胞毒)포르말린과 같은 종류이니까, 이러한 것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데도 독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일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민감한 신경세포가 침해당하고, 그 결과로 악취가 생긴다는 순서이다.

따라서 산화를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한 산소의 충분한 보급을 비롯해서 앞에서 말한 모든 대책은 모두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것이다.

비타민 부족도 이같은 이유에서 악취의 감수성을 높이는 인자가 된다. 그래서 영국의 굴드박사 등도 한 잔 하기 전에 비타민 B₁을 100~200밀리그램, C를 200~600밀리그램, 그리고 또 마신 후에도 같은 분량을 또 한번 복용하는 것은 악취의 「사회적 예방법」이라고 한 말도 이해를 할 수 있다.

더우기 절주, 즉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것도 악취예방에 유효하고 현명한 대책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H박사는 아세트알데히드의 혈중농도를 0.3밀리그램% 이하로 유지하면 악취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양은 보통사람을 표준으로 해서, 청주라면 간단하게 2홉, 맥주라면 2병 이하, 위스키라면 4잔이 그 한도라고 한다.

악취의 치료에는 카페인이나 아스피린 따위의 진통약, 또 구역질에는 크롤프로마진이나 트라벨민(50밀리그램)등의 정신안정제가 효력이 있다고 한다. 그 밖에 루비탈계의 수면제를 권하는 사람도 있으나, 알콜과는 상승적으로 마비작용을 촉진하게 되므로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알콜농도가 짙은 술로 급성중독이 왔을 때는 크롤프로마진과 같은 정신안정제가 아니라, 페르네틸드라진과 같은 에네르가이저

(신경의 대사촉진제)를 쓰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최근에는 많아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탈리아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술과 함께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따라서 커피에 약한 사람은 위를 해쳐 숙취를 더욱 심하게 할 염려가 있다.

(사) 숙취의 예방

숙취는 악취에서 볼 수 있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신경자극증상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독한 알콜로 말미암은 위염의 증상, 또 청각(聽覺), 특히 평형감각의 흥분, 그리고 항이뇨(抗利尿) 호르몬의 활동부전에서 오는 전해질(電解質)의 언발란스나 탈수(脫水) 상태, 그리고 간장기능의 저하로 말미암은 아치도시스나 저혈되어 당 증상, 스트레스 상태에 의한 자극 호르몬의 분비부전(分泌不全)등이 크든 작든 얽히어서 발생하는 전신성 피로나 허탈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 견해이다.

물론 전날 밤에 마신 술의 종류나 마시는 태도, 또는 체질이나 몸의 그날 컨디션에 의해서 증상 전체가 더욱 과장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실제로 필랜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숙취의 경우, 아침의 맥박수는 평소보다도는 10% 가까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30명의 건강한 사람에서 체중 1킬로당 평균 1.67그램의 알콜을 전날 밤에 2~3시간에 걸쳐서 마시게 한 결과인데 이 중에서 숙취상태가 된 9명을 다시 자전거 에르고미터에 태워서 운동을 시켜 보았다.

그렇게 해본 결과, 1분간의 맥박수의 증가가 숙취의 경우는 통계적인 뚜렷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피로하면 피로할 수록 일정한 운동에 대한 맥박수가 느는 것은 운동생리학의 상식이니까, 이같은 숙취의 데이터를 보면, 숙취는 전신적

인 피로가 주체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간장약 따위의 소위 스테미너를 유지하고, 또 체력을 강화하는 보건의약이 숙취의 예방이나 치료에 널리 애용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의미에서 술 마실 때는 술뿐이 아니라 단백질을 많이 포함한 소위 스테이너 식' 품을 안주로 고르는 것도 숙취의 예방이 되는 것이다.

숙취를 막으려면, 우선 악취를 방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밖의 대책을 여기서 간추리기로 한다.

① 우선 술과 함께 단백질을 먹어 둘 것. 치즈·계란·새우·생선·쇠고기·두부 등 얼마든지 있다.

② 마신 뒤에는 단음식을 보급할 것. 벌꿀이라면 최고의 적격품이다.

③ 위의 컨디션을 주의할 것. 술과 함께 땅콩이라든가 김치 종류, 물에 말아먹는 밥, 날푸성귀, 섬유질이 많은 과일 따위는 위의 부담을 더욱 심하게 하니까 피해야 한다.

(아) 술에 강해질 수 있는가

알콜을 우선 산화해서 알데히드로 변화시키는 것은 간장 속에 있는 알콜 탈수소효소라는 효소의 역할이다. 동물실험에 의하면, 이 효소에는 훈련효과는 없다. 즉 아무리 술마시는 습관이 몸에 배어도 효소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 결과는 우리들 일상생활의 경험과도 일치한다. 체질적으로 술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되는 일이다.

얼마 전에 어느 후배로부터 「저는 술이 약해서 사업상 마셔야 될 경우에 못마셔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술이 세어질 수 있습니까?」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비단 그뿐만이 아닐 것 같아, 여기서 언급하기로 한다.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억지로 마시고 싶

다는 의논은 도무지 말이 안되는 희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주량을 배(倍)로 증가시키는 정도라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간장 속에서 알콜을 우선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화시키는 탈수소효소의 양은 체질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지만, 달리 움직이는 조건은 몇 가지 있다.

우선 술을 조금씩 마셔서 길을 들인다.

앞에서 말한 효소의 양은 늘지 않더라도 아세트알데히드를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하는 카타라제라는 효소의 활동은 2~3개월의 훈련으로 훨씬 향상한다는 사실이 실험에서 증명되고 있다.

또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위에서의 알콜분의 흡수를 늦추는 방법도 있다. 그러자면 빈속에 마시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기름이나 기름과 같이 위벽에 늘어 붙어 알콜과 위벽이 직접 접촉하는 면적을 줄이는 성질이 있는 음식물이 적합하다.

즉 튀김이나 돼지고기 가톨릭, 햄버그스틱, 크림이 든 케이크, 초콜렛, 한식으로는 돼지갈비 따위가 적합하다.

또는 마시는 도중에 당분을 보급한다. 벌꿀이 제일 좋지만, 찹쌀떡 같은 것도 대용할 수가 있다. 중국의 「라오주」(老酒)라는 술은 알콜 함유량이 80%나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얼음사탕을 넣어서 마시기도 한다.

또 멕시코의 테킬라(Tequila)라는 술도 레몬과 소금을 곁들여서 함께 섭취하는 등, 모두 그럴 듯한 방식이 정해져 있다.

K교수에 의하면, 주의 복강(腹腔)속에 주사한 알콜은 44.23도 정도로 온욕(溫浴)을 시키는 것이 혈중농도를 높이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온천지방 따위에서 열리는 연회에서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술기운 뺏다는 것이 좋다는 실험을 하고 권장한다. 경험은 인간의 지혜를 높이는 모양이다.

술과 SEX

(가) 술은 정력을 정지시킨다

양 의 동서를 불문하고, 옛날부터 술과 섹스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녀 왔다. 섹스란 우리말로 옮기면 「색(色)」이라고 해서, 「주색(酒色)」이란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유명한 요한 스트라우스(Johann Strauss)의 왈츠(Walz)에도 「술과 여인」이라는 제목의 악곡이 있다.

또 술좌석에 여자가 시중을 드는 것은 오늘날도 옛날이나 다름없는 동양적인 접대법이라고 하겠다.

사실, 알콜은 마시는 사람의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 차별이 없는 건강감, 신체적·정신적 안락감을 얻을 수 있어, 술을 마신다는 것은 어쨌든 즐거운 일이다. 더우기 술은 경계심이나 공포심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마음이 폭 놓이고, 정신적이 부담이나 긴장 따위도 제거해 준다. 뿐만 아니라 열등감이나 취약감 따위도 훨씬 줄여주는 구실을 한다.

더우기 생물적인 동물 본능이 지배적으로 발동하고, 이지적인 자제심이 상실된다. 이러한 관계에서인지 술에는 매력적인 작용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알콜에는 신경의 작용을 억제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이 억제력의 효과는 뇌 가운데서도 제일 고차적인 중추, 즉 정의(情意)에 관계되는 부분에 먼저 작용한다. 거기에 잇따라 차차로 저차적인 중추, 말하자면 먹는다든가 섹스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동물이 다 가지고 있는 관능이 마비되기때문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시고서 알맞는 정도의 수치심이나 극기심을 잃을 조건이 갖추어지면, 여기서 마치 성욕이 발동한 것 같은 행위가 나타난다. 이러한 상태는 근래에 흔히 쓰이는 탈선이라는 종류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술이 더해지면, 성욕에 직접 관계가 있는 중추도 억제되기에 이르러 어느 때의 보통상태보다도 오히려 성욕이 감퇴한 상태로까지 진행되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약리학적으로 말하면, 알콜은 안정제일 수는 있어도 미약(媚藥)이나 강정제는 아니다. 실제로 알콜에는 음경(陰莖)의 발기를 촉진하거나 사정을 강화시키는 작용은 없는 것이다. 다만, 고차원의 정의의 활동을 억제하고 보다 낮고 천한 동물적 관능의 활동을 노골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얼핏 보아 성욕도 강화된 것같이 느껴질 뿐인 것이다.

옛날 서양에서는 술의 신(神) 박카스의 노래에는 괴상한 섹스의 가사가 붙어 있었다. 요정이나 카바레니 하는 곳에서 술을 젖쳐놓는다면, 불꺼진 잿더미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취기를 이용한 이런 수 저런 수의 괴이한 수법 수단이 오가는 게 상례이다.

실제로 동물실험으로 조사해 보아도, 알콜은 성욕을 억제할 극기심을 빼앗아 불타는 대로 내버려 두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존스호프킨스 대학의 칸트 박사는 20년이나 개의 조건반사를 연구하고 있는데 : 5마리의 수캐에 대해서 섹스의 반사를 조사한 일이 있다.

조사한 항목은 발기(勃起)의 잠복시간, 발기의 지속시간, 그리고 사정(射精)의 잠복시간의 3가지 였는데, 알콜의 분량은 체중 1킬로당 0.5cc, 1.0cc, 2.0cc의 3종류로 했다.

단, 이들 알콜은 10~20%의 밀크 용액으로서 마시게 한 것이다.

즉 체중 1킬로당 0.05cc의 알콜로, 이미 발기의 잠복시간이 늘고, 사정의 잠복시간이 약간 단축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양을 배로 늘린 1cc가 되면 그 정도는 훨씬 심해지고, 2cc가 되면 발기도 사정도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다.

체중 1킬로당 0.5cc라고 하면, 체중 50킬로인 사람이 위스키라면 50cc, 청주라면 8작 정도, 맥주라면 1병 정도니까,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분량과 별로 차이가 없다.

더우기 칸트 박사의 말을 빌면, 사람은 개보다 다소 알콜에 약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니까 평소에 마시는 정도의 술로도 충분히 성행위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데이터로도 알 수 있듯이 알콜은 섹스에 대한 반응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의 경우로 생각하면, 체중 1킬로당 2cc, 따라서 맥주 4병, 혹은 청주로 2홉 정도 마시면 발기나 사정도 안된다는 계산이 된다.

하지만, 우리들 인간의 경험은 반드시 이러한 계산이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술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의 개인적인 차가 크기 때문이다. 설사 개로 실험한 결과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맥주 1병으로 발기가 억제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6~7병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도 이상할 것은 못된다.

(나) 섹스 노이로제를 고친다

그리고 또 소위 노이로제로 변민하는 사람의 반응은 달라지고 있다.

칸트 박사가 개 가운데에는 노이로제에 걸린 개가 2마리 있었다. 1마리는 초조감을 나타내는 노이로제로서, 활동이 과대하여 개들끼리의 교체도 넓었지만, 가끔 병적인 발기와 조루증이 있었다.

이 개에게 소량의 알콜을 투여하니 조발성(早發性)발기나 사정이 시정되었다. 또한 1마리의 개는 극히 내향적이며, 겁이 많은 편이었

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기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개에게 체중 1킬로당 2cc의 알콜을 투여하니, 국소의 자극으로 37분이나 발기를 지속하게 되었다. 이미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이같은 분량은 정상적인 개의 발기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니까, 이러한 노이로제에 걸린 개에서는 어찌든 간에 보통과는 다른 성적 반응이 음주로 말미암아 정상화된 것은 확실하다.

이처럼 개를 가지고 조사한 알콜의 성기능에 관한 실험을 약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지식이 인간의 성기능에도 적용되어, 부부간의 성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무슨 흥미를 돕기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레벨을 갖는 것이기에 성행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성생활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의 발기불능이나 조루증, 또는 아내의 불감증은 부부생활의 원만을 일그러뜨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또 노이로제 기타의 소위 문명병(文明病)에 꽤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앞서 내세운 개의 연구에서 얻은 시사(示唆)를 이야기해 두기로 한다.

부부간의 성행위에서 양쪽의 성적 흥분이 대체로 비등한 레벨로 진행되어, 최종적인 엑스타시로서의 남성쪽의 사정, 여성쪽의 오르가슴까지 높아져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 시기에 착오가 있으면 서로 불만이 생긴다고 한다.

따라서 성적 흥분의 템포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남녀가 다 각각 개인차가 강하기 때문에 이에선 전희(前戲) 따위의 꽤 어렵고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남자쪽의 흥분이 빨리 진행되고 여자는 좀 느린 것이 보통인데, 성적 경험의 대소와 나이의

차이 등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알콜, 즉 술을 이 규방화합(閨房和合)에 어떻게 응용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부부 중의 어느 쪽이든 성적 흥분이 빨리 오는 쪽만이 술을 마시든가, 혹은 같은 레벨에서 조금 더 많이 마신다든지 하면 오르가슴과 사정을 꼭 일치시키는 데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다.

또 근래에는, 정신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노이로제적인 사람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조루라든가 발기불능으로 고민하는 남자도 적지 않으리라고 상상되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앞서 말한 노이로제에 걸린 개의 실험에서 성기능을 건전하게 회복시켰다는 데서 힌트를 얻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감증으로 고민하는 여성도 우선 알콜로 치료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남자가 함께 주량을 조절하면서 호흡을 맞추어 나가면,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됐다」하는 정도의 주량이 결정될 것이다.

얽힌 여성을 유혹하는 데 술이 이용되는 수법은 옛날부터 동서양의 소설에도 많이 실려왔지만, 이것은 작가들이 어느 정도의 경험을 토대로 묘사한 것이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내성적인 개의 실험으로 보아도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될 것 같다.

(다) 알콜과 성범죄

다음에는 알콜과 범죄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술로 인한 사람 및 기물에 대한 폭행은 늘어가는 흐름이 있다. 그 음주량의 다소에 따라, 분량이 적을 때는 기물에 대해서 그리고 양이 많아짐에 따라 사람에게 대하여 폭행을 하게 되는 사례가 범죄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뒤 사정을 분간하지 않는 폭력의 경우일 뿐으로, 예를 들어 부녀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가 음주로 인해서 증가되

는 일은 없다. 그와 같은 범죄는 지적(知的) 요소가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까. 설사 범인이 술마셨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핑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적어도 남녀의 분간을 할 수 있는 사이의 범죄, 즉 성적인 범죄를 술에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그렇지만 음탕한 영화라든가 잡지의 기사라든가에서 얻은 지식으로, 평소부터 어쩐지 그러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받게되는 처벌을 망각하고 부녀자에게 폭행을 하는 그러한 사건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물의 실험에 의해서도 이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쥐의 실험에서 암놈에게 교미하려는 순간, 전기의 자극으로 찌릿찌릿하도록 쇼크를 주는 장치를 한 우리 안에서 사육된 숫놈은 그 쇼크가 싫어서 보통 때는 교미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알콜을 먹여 놓으면 전기의 쇼크 따위는 아랑곳없이 용감하게 교미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 인간사회에서는 흔히 「술 때문에 양심이 마비된다」고 형용하지만, 이 실험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형용이 옳지 않으며, 술 때문에 비행(非行)이나 범죄를 저지른 결과로 생기는 처벌을 망각하고서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법일 것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비행이나 그러한 범죄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의설 영화나 출판물에 죄가 있을지언정 술에는 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반대로 술이 마비 혹은 마취제의 일종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겨냥한 부녀자에게 술을 많이 먹인 후, 비행을 저지르려는 간계(奸計)를 가진 남성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를 당한 장본인이 고소를 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젊은 부녀자가 술을 마실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고, 그러한 건달들의 수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